

전남도, 성장단계 맞춤형 지원 '지역 대표기업' 육성

성장사다리 사업 30일까지 모집
잠재·스타·선도기업 등 3개 분류
사업비 44억 투입 프로그램 운영
"기술경쟁력 차별화로 시장 선도"

전남도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 대표기업을 육성한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역 대표기업 육성을 위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인 '2024년도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참여 희망 기업을 오는 30일까지 모

집한다.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은 전남도와 중소기업부가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세워 기업을 '잠재기업 → 스타기업 → 선도기업' 등 성장 단계별로 분류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44억 원이 투입된다. 먼저 잠재기업은 창업 3~7년 된 기업으로, 기획 지원·기술 이전·시제품 제작 등 초기 육성 프로그램을 중점 지원한다. 스타기업은 연매출 25억원 이상 기업으로 기술 진단·기술 혁신·수출 지원 등

혁신성장에 중점을 뒀 지원하고 선도기업은 연매출 40억원 이상 기업으로, 전담 프로젝트 관리자(PM) 매칭·기업 협업전략·연구개발(R&D)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 대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전남에 3년 이상 소재, 환경에너지 소재·부품, 친환경에너지 설비·기자재, 자연유래 헬스케어 등 전후방 연관 업종의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4개 분야, 142개사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분야별로 잠재기업 64개사, 스타

기업 25개사, 선도기업 10개사, 주축산업 핵심품목 43개사 등을 선정한 기업당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완료기업,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기업, 중소기업중앙회 선정 명문장수기업, 원산지인증수출자 등은 우대 지원한다. 지원을 바라는 기업은 자격 요건과 구비서류를 갖춰 온라인 신청 사이트(www.smtech.go.kr/region/rm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모집공고문은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이나 전남테크노파크(www.jntp.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전남도 기반산업과(061-286-3822), 전남테크노파크(061-729-2533)에 문의하면 된다.

소영호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최신 기술 수요와 대내외 산업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유망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며 "지역 중소기업이 차별화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을 선도하는 지역 대표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전남도,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공모

유통시설 등 최대 10억원 지원
5월24일까지 주소지 시·군 접수

전남도는 '2025년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참여할 친환경 농업(법)인을 오는 5월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소비자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에 어려움이 많은 과수·채소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배외 품목(과수·채소 등)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됐다.

신청 대상은 친환경농경지 1ha 이상을 재배하고, 친환경 과수·채소를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 계획이 있는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다. 참여를 바라는 농업(법)인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시·군 친환경농업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내용은 친환경 과일과 채소류 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구축이다. 1개소당 지원 사업비는 최대 10억원이다. 사업비 부담 비율은 지방비 보조 70%, 자부담 30%다. **곽지혜 기자**

전남도 '집중안전점검' 기간 운영... 1688곳 점검

전남도가 지역 내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2024년 집중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6월21일까지 61일간 건설현장, 노후건축 시설물, 도로시설물, 어린이이용시설, 산사태취약지역 등 1688개소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집중안전점검 대상은 노후 시설물, 어린이 이용시설 등 사고 발생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을 우선으로 선정했다.

점검은 토목·건축·전기·소방 등 189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과 담당 공무원, 도민,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으로 이뤄진다. 산사태 취약지역,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인력 접근이 곤란한 시설물은 드론을 활용하고, 육안으로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시설은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해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또 점검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집중안전점검 모바일 앱을 이용, 점검자가 현장에서 휴대폰으로 점검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구축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이나 가정은 자율 안전점검표를 제작·배부해 도민이 직접 점검에 참여토록 유도하는 등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안전점검이 일상화 되도록 안전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현장에서 바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은 사용 금지·철거 등 긴급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신속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업은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 예산을 건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보수·보강이 시급한 3개 시설물에 대해 중앙부처 협의를 통해 19억9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았다. 점검 결과는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safewatch.safemap.go.kr)에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온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곽지혜 기자**

전남도 '맞춤형 교육' 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

전남도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 교육을 주말반과 찾아가는 교육 등 맞춤형으로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직장생활로 주중 교육 참여가 어렵거나,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열악한 농어촌 지역 거주자 편의를 위해 신설됐다. 맞춤형 교육은 전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실시한다. 18세 이상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며 활동지원사 활동을 바라는 도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권역별로 지정된 교육기관 3개소에서 3000명 수료를 목표로, 지난해보다 14회 늘어난 총 59회차로 확대 편성해 온

영한다. 교육과정은 기본과정(이론 및 실기교육 40시간·현장실습 10시간)과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유사경력자 등이 수강하는 전문과정(이론 및 실기교육 32시간·현장실습 10시간)으로 이뤄진다. 교육은 △장애의 이해 및 인권 △장애 유형별 활동지원 △응급상황과 대처방법 등 장애인활동지원사로서의 직업윤리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구성됐다. 교육 및 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부권 전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061-332-4106), 동부권 광양시 광양장애인종합복지관(061-761-4438), 서부권 (사)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061-284-6705)로 문의하면 된다. **곽지혜 기자**



유럽을 순방중인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2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베스타스 토미 라벡 닐슨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 머스크 빈센트 클릭 글로벌 CEO, 박홍률 목포시장과 해상풍력 터빈공장 목포신항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MOA)을 체결하고 있다. 이번 투자협약 체결로 베스타스와 머스크는 공동으로 약 3000억원을 투자해 목포신항 항만배후단지 20만㎡(약 6만평)를 확보하고, 연 최대 150대 생산 가능 시설을 건립, 2027년부터 양산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전남도 제공**

김영록 도지사, 베스타스·머스크 터빈공장 유치

코펜하겐서 3000억 투자협약
목포신항 배후단지에 건립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2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베스타스 윈드 시스템스 A/S, A.P. 몰라-머스크 A/S, 목포시와 해상풍력 터빈공장 목포신항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MOA)을 했다. 협약에 따라 베스타스와 머스크는 공동으로 3000억원을 투자해 목포신항 항만 배후단지 20만㎡(6만평)에 연 최대 150대 생산 가능 시설을 건립한다. 2027년부터 양산 목표다. 베스타스는 국내 해상풍력 연관 부품기업 등과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부품 국산화 및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구축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머스크는 신규 물동량 창출 등을 통해 목포신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글로벌 1위 터빈사인 베스타스와 세계적 통합 물류기업인 머스크의 이번 공동 투자는 단순히 터빈공장 하나를 전남에 유치했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특히 "해상풍력발전기 핵심부품인 터빈공장의 전남 유치는 베어링, 변압기 등 부품업체와 타워, 하부구조, 케이블 등 협력업체의 집적화를 통해 전남이 대한민국을 넘어 아·태지역 해상풍력 수출 전진기지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머스크 목포신항 투자는 무안공항·목포신항을 중심으로 항공·해운 물류

거점의 교두보가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서남권 신산업 육성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김영록 지사는 "베스타스의 터빈공장이 설립되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에 서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베스타스 터빈공장 유치를 따라 목포신항과 해남 화원산단을 연계한 해상풍력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베어링, 변압기 등 부품업체와 타워, 하부구조, 케이블 등 연관기업 유치 활동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국립목포대학교 등 지역 대학 등과 베스타스 터빈공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200명의 기능인력과 터빈 유지보수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곽지혜 기자**

광주시, 경력단절여성 유망 일자리 지원

여가부 직업교육과정 2개 선정

광주시가 경력 단절 여성의 유망 일자리 진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22일 광주시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따르면 최근 여성가족부 중앙새일지원센터 공모를 통해 신기술 미래유망직종 직업교육훈련 '그린리모델링 전문가' 과정과 신기술 응용분야 직업교육훈련 '챗 GPT 마케팅 현장실무' 과정 등 2개 과정이 선정

됐다. 이에 따라 광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사업비 전액을 국비(7500만원)로 확보하고, 5월부터 2개 과정을 신규 운영한다. 신기술 고부가가치 교육과정은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기술(IT), 콘텐츠, 디자인분야 등 고숙련, 고부가가치 훈련과정으로 구성된 여성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챗 GPT(AI)활용 마케팅 실무' 과정

은 광주센터에서 5월7일부터 8월7일까지 교육생 20명을 선발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 마케팅 교육, 리모트 워크(원격근무) 기업 취업 및 협업 방안 교육 등을 진행한다. '그린리모델링 전문가 양성' 과정은 광주북구센터에서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에 대비해 그린리모델링 전문가를 양성한다.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생으로 선발되면 직업교육훈련과 취업상담, 일 경험(인턴십),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등 통합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노병하 기자**